

# 성경에 등장하는 악기들의 해석문제 -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권정구(성결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성경에 나오는 악기의 실제모양과 음색, 구성음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고고학적 발견이 적어 이집트나 과거 바벨론 지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랍비에 의해 쓰여진 문서들, 미쉬나, 요세푸스, 탈무드에 나오는 악기에 관한 구절에서 약간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악기들은 용어가 분명하지가 않으며 설명 또한 희박하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21절에 처음으로 악기가 등장한다.<sup>2)</sup> 아담의 후손 중 '유발'이 통소와 수금(豎琴)을 잘 다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NIV성경에서는 수금과 통소가 하프(harp)와 플루트(flute)로 표기되어있다. 초창기 성경번역에 있어 외래어로 된 악기를 한국전통악기로 대체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한국의 전통악기인 거문고, 피리, 생황 등이 구약 시대에도 사용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악기 연구로는 박성은<sup>3)</sup>, 고희주<sup>4)</sup>, 김해송<sup>5)</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히브리어,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한글번역본을 비교하였고 성경에 등장하는 장절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박성은의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의 목적을 살피고, 이들을 현악기,관악기,타악기로 분류하여 그 명칭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나아가 이들 악기의 히브리어 이름과 성경에 거론된 횡수, 유사한 악기들까지 비교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악기가 여러 악기로 번역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명칭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악기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정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에는 수천 종의 다양한 악기가 존재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간단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른보스텔과 쿠르드작스의 분류법<sup>6)</sup>으로 이들은 소리의 울림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현명(현악기), 기명(관악기), 막명(북 종류), 체명(북을 제외한 타악기), 전명

1) 최혁, 『나의 찬송을 부르라』(서울:규장,1994),p.233

2) 개역개정판 참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3) 박성은, 「성경에 나타난 악기 역할에 비춰 본 현대 교회음악의 악기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4) 고희주, 「구약성경의 악기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5) 김해송, 「성경의 악기에 관한 연구」, 『教授論叢』, 한세대학교, 1994, 361-378쪽.

6) 호른보스텔-작스 (Hornbostel-Sachs)는 호른보스텔과 쿠르트 작스가 세운 악기 분류 체계이다. 이들의 분류는 벨기에의 마히용이 고대 인도의 음악 및 연극론서 『나티야 샤스트라』에서 차용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14년 Zeitschrift für Ethnologie에 처음으로 발표하였고 악기를 분류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계이다.

악기(전자악기)로 구분하였다. 보통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하는 것에 비해 이들은 타악기를 막명과 체명으로 세분화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도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현악기는 활을 사용하는 찰현악기와 손가락으로 통기는 발현(탄현)악기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분류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 ‘악기별 번역본 비교와 악기의 구조에 따른 구분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탄현악기는 하프처럼 수직으로 세워서 연주(Vertical), 가야금처럼 바닥에 대고 수평으로 연주(Horizantal), 기타나 비파처럼 사선으로 연주(Diagonal)하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관악기의 경우도 클라리넷처럼 세로로 부는 종적(縱笛), 플류트와 같이 옆으로 부는 횡적(橫笛), 생황·백파이프처럼 여러음을 동시에 내는 형태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조적 구분으로 다니엘서의 악기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왕이 만든 신상 앞에서 연주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6가지 악기들이 등장한다. 이 악기들에 대해 라틴어를 비롯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로 된 번역내용을 살핀 후 앞에서 제시한 분류방식으로 구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결과들을 통해 현실에서 적용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1 악기에 대한 언어별 번역내용 비교

다니엘서 3장에는 4번(5, 7, 10, 15절)에 걸쳐 연주장면이 나온다. 개역개정 4판과 NIV 영어번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 개역개정 4판

####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옆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옆드리어 절하니라

#### 10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옆드리어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7) GODpia성경 홈페이지(<http://bible.godpia.com>) 개역개정판 참조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NIV**

3:5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flute, zither, lyre, harp, pipes and all kinds of music, you must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of gold that King Nebuchadnezzar has set up.

3:7

Therefore, as soon as they heard the sound of the horn, flute, zither, lyre, harp and all kinds of music, all the peoples, nations and men of every language fell down and worshiped the image of gold that King Nebuchadnezzar had set up.

.

3:10

You have issued a decree, O king, that everyone who hears the sound of the horn, flute, zither, lyre, harp, pipes and all kinds of music must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of gold,

3:15

Now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flute, zither, lyre, harp, pipes and all kinds of music, if you are ready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I made, very good. But if you do not worship it, you will be thrown immediately into a blazing furnace. Then what god will be able to rescue you from my hand?'

위의 성경구절을 분석해보면, 다니엘서 3장에는 6개의 악기(관악기 3, 현악기3)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어성경의 모체가 되는 라틴어 성경에서도 6개의 악기가 등장한다. 다니엘서 3장 5절의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3:5

in hora qua audieritis sonitum tubæ, et fistulæ, et citharæ, sambucæ, et psalterii, et symphonix, et universi generis musicorum, cadentes adorate statuam auream, quam constituit Nabuchodonosor rex.<sup>8)</sup>

본문에 있는 악기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면 나팔종류의 tubae, 구멍 뚫린 피리 종류의 fistulae, 소형 하프계열의 수금 혹은 거문고로도 번역되는 citharae, 고대의 삼각형 모양의 하프 혹은 일본의 샤미센으로 해석되는 sambucae, 첼발로 전신(前身)인 dulcimer 혹은 양금과 유사한 psalterium, 생황·백파이프와 유사한 symphoniae이다. 이들 악기 중 symphoniae는 다른 악기들이 4번 나오는 것과 달리 3번만 나오는데, 이를 두고 바람을 불어 넣는 악기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Galpin과 Sachs는 바벨로니아의 악기 목록에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Symponiae는 악기가 아니라 앞서 개별적으로 언급한 모든 악기들이 이루는 앙상블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도 했다.<sup>9)</sup> 한편 다니엘 3:7에만 생황이 없으므로 원래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주장도 있다.<sup>10)</sup>

명확한 의미를 얻기 위해 라틴어 원문을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다니엘 당시의 악기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틴어 원문을 바탕으로 다니엘서 3장에 표현된 6가지의 악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6가지 악기들

1. tubae : 자연소재의 뿔 혹은 소라 고동으로 만든 나팔
2. fistulae : 나무에 구멍을 뚫어 소리를 내는 옆으로 부는 관악기
3. citharae : 작은 하프류, 비파 계통의 악기
4. sambucae<sup>11)</sup> : 큰하프류, 비파류
5. psalterium : 실로폰처럼 막대로 음을 쳐서 내는 악기- 첼발로 계열의 돌시머
6. symphoniae : 동시에 여러 소리를 내는 악기

위의 악기들은 관악기 3, 현악기 3으로 구분된다. 관악기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적, 횡적, 파이프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현악기에 있어서는 Sambucae와 Chitarae의 다양한 해석으로 주의를 요한다. 앞서 현악기를 수평, 수직, 사선형으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psalterium은 수평형으로 정리된다. citharae와 sambucae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두 악기 모두 수직, 수평적 악기로 해석이

8) <http://vulsearch.sourceforge.net> 참조

9) 『성서백과사전』 제7권, 609-610쪽

10) 김명환, 『찬양의 성전』, 서울:새찬양위원회, 1999, 202쪽

11) 고대 그리스의 악기 이름. 페니키아 또는 헤브라이에서 전래되었다는 하프 또는 프살테리움. 그리고 별도로 작은 플루트를 가리키는 일도 있었다. <네이버 파플러 음악용어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0400&cid=50334&categoryId=50334>

되는 것이 문제이다. 열왕기하 3장 15절<sup>12)</sup>에서 harp(수직형)가 거문고(수평형)로 번역되었다. 이 경우 악기의 구조가 달라 원래의 악기를 추론하기가 매우 힘들다. sambucae의 경우 시간이 흘러 여러 지역에서 현지의 악기로 차용되면서 원래의 구조를 짐작하기 힘들게 되었다. 악기별 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여러 번 역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로는 개역개정판을 포함 6종,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 등의 언어로 번역된 악기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구조적 측면을 조명할 것이다.

#### 1) 한국어<sup>13)</sup>

##### 개역개정

나팔, 피리, 수금(豎琴), 삼현금, 양금, 생황

##### 개역한글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 쉬운성경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 공동번역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통소

##### 새번역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풍수

##### 현대인의 성경

나팔, 피리, 수금, 그 밖의 악기 소리

6종의 한글 성경 중 5종의 한글성경에 6가지 악기가 나오는 것과 달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팔, 피리, 수금, 그 밖의 악기 소리’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개역개정판과 개역한글판, 쉬운성경의 악기는 동일하다. 한편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나팔, 피리, 사현금, 거문고, 칠현금은 동일하고 통소가 풍수로 다르게 나타난다. 6종의 한글 번역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악기는 나팔과 피리만이 유일하다. 나열된 개별 악기

---

12) But now bring me a harpist.' While the harpist was playing,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Elisha :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3) GODpia홈페이지 참조. <http://www.godpia.com>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악기

나팔은 세로로 부르는 관악기의 총칭이다. 다니엘 당시는 금관악기가 사용되던 시절이 아니므로 동물의 뿔이나 나무로 세로로 부르는 종적(縱笛)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리는 한국전통악기 중 대나무로 만든 세로로 부는 리드가 있는 종적이다. 바벨론 지역에서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지 않았기에 그 지역의 나무에 구멍을 뚫어 붙였던 관악기를 피리로 표현하였다고 보인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Magic flute’을 ‘마술피리’로 번역한 것처럼 가로로 부르는 횡적을 피리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전통악기 중 횡적은 대금, 소금과 같은 악기들이다.

생황<sup>14)</sup>은 동서양에 걸쳐 존재하는 악기형태로서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 있는 관악기이다. 원래는 바가지에 여러개의 관을 꽂아서 소리를 내었다. 유럽의 백파이프, 파이프오르간, 풍금, 하모니카 등과 유사한 원리이다.

통소(洞簫)는 공동번역에서만 등장하는데 세로로 부는 악기로 단소보다 훨씬 긴 형태의 한국의 전통관악기이다. 일본의 샤쿠하치(尺八)와 유사한데 소(簫)는 세로로 부는 악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음을 동시에 내면서 파이프, 생황계통의 악기와는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생황 혹은 풍적, pipe로 표기하고 있어 통소의 번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풍수는 새번역 성경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악기로 다니엘서에 4번 등장하는 것이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악기는 국어사전 및 음악대사전, 신문기록에도 찾을 수 없으며 한자가 병기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풍은 風을, 수는 세로로 부는 소(簫)를 합쳐 풍소라고 조어한 것이 풍수로 표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 현악기

수금(豎琴)은 하프계열의 악기로 한국전통음악에서 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서양의 하프에 해당하는 공후(箜篌)라는 악기가 존재하고 있다. 수금에서 琴의 의미는 가야금처럼 바닥에 눕혀서 연주하는 악기를 통칭한다. 일본성경에서 수금(豎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하프를 일본식 단어로 번역하면서 세운다는 뜻의 한자 ‘豎’를 사용하여 수금(豎琴)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금은 일본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온 결과로 보이며 향후 하프로 표현하던지 아니면 한국전통악기인 공후로

14) Symphoneyah(숨폰야)는 여러 소리를 동시에 낸다는 헬라어 Sumponia와 같다. 영어성경에서는 Pipes로 나오며, 구약성경 다니엘 3:5,10,15에 모두 3번이 나온다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거문고는 수평형으로 연주하는 zither류의 악기로 고구려를 원류로 하는 한국전통악기이다. 이 악기는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악기가 아니며 번역 당시 선교사들이 harp를 번역하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양반계층이 다뤘던 거문고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금(洋琴)<sup>15)</sup>은 18세기 영조대왕 시기에 청나라에서 유입된 악기이다. 채를 줄에다 쳐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수평으로 연주하는 zither류 악기에 속한다. 현재는 한국의 전통악기가 되었다.

삼현금, 사현금, 칠현금은 다니엘서만 나오는 악기들이다.<sup>16)</sup> 기본적으로 현악기의 줄수에 이름붙인 악기이다. 이들 중 삼현금과 칠현금은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대성악이 유입되면서 들어온 아악기이다. 『고려사』 권71(「악지」)에 의하면, 1116년(예종 11) 왕자지(王子之)와 문공미(文公美)가 가지고 귀국한 대성아악기(大晟雅樂器)의 하나가 삼현금이다. 세 줄짜리의 삼현금은 임금이 친히 참석하는 제향(祭享)의 등가와 헌가에서 연주됐다. 삼현금은 일현금(一絃琴)·오현금(五絃琴)·칠현금(七絃琴)·구현금(九絃琴)과 함께 연주됐다.<sup>17)</sup> 현재는 종묘제례 등의 의식음악에서 배치되나 실제 연주를 하지는 않는다. 전통악기의 관점에서 삼현금과 칠현금은 수평으로 연주하는 악기여서 zither 계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삼현금을 비파계열의 악기로 보게되면 일본의 3줄의 전통악기인 샤미센, 러시아의 발랄라이카와 유사한 악기로 해석된다. 샤미센은 三絃으로도 표현되는데 1920년대 신문을 보면 당시 샤미센(三味線)을 삼현금(三絃琴)으로 묘사하고 있다.<sup>18)</sup> 한편 1992년 한겨레신문에서도 일본의 가부키문화를 비판하면서 샤미센을 삼현금으로 표기하고 있다.<sup>19)</sup> 앞에서 수금을 일본성경에서 차용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성경에서는 삼현금이 나오지 않는다. 한글번역 당시 담당자들이 비파류에 해당하는 악기로 일제시대 이후 흔히 보였던 삼현금(샤미센)을 차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7현금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다니엘서 이외 역대하 5장 12절<sup>20)</sup>에서 한번 등장한다.

15) 양금은 이란의 dulcimer 계열의 악기이다. 한편 조선 후기 양덕수가 편찬한 악보집 『양금신보』(梁琴新譜)는 거문고 악보로 중국에서 유입된 양금악보가 아니다.

16) 칠현금의 경우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4번만 나온다. 그러나 공동번역성경에는 역대하 5장 12절에 1번 나온다.

17) 『한겨레음악대사전』 인터넷 검색어 ‘삼현금’ 참조.

18) 「동아일보」 1922.08.18.1면. “滋味(자미)있게한다 모험사람들은 喜々樂々한 기쁨이매우 端雅하고점잔다...인력거에서나릴때에三絃琴(삼현금)을안고드러간다”

19) 「한겨레」 1992.01.24. 20면. “민족감정에 가려진 가부키의 나라” : 분라쿠는 샤미센(삼현금)의 반주에 맞춰 세사람이 놀리는 전통적인 인형극이다. 또 가부키는 15세기 에도시대에 생겨난 고전연극으로, 지금은 일본 전통연희의 간판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20) 역대하 5장 2절 레위 성가대원으로서 모시옷을 입고 바라와 칠현금과 거문고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섰고, 이들과 함께 백이십 명의 사제들이 나팔을 입에 대고 불었다. 거기에 참석한 사제들은 순번을 가리지 않고 전원이 목욕재계를 했던 것이다.

NIV성경에서는 7현금을 harp로 표기하고 있어 수평형의 7현금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악기는 삼현금과 같이 고려시대 대성아악을 위해 송나라에서 유입된 악기로 일상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사현금은 대한제국 말기 4줄의 바이올린을 일컬었던 용어로 다니엘서에만 나온다. 한편 대성아악이 전해질 때 포함된 zither 계열의 악기이기도 하다. 새번역 성경에서 ‘풍수’에 대한 번역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사현금을 한국전통악기로 해석하게 되면 수평형의 zither 악기가 된다. 한편 구한말 시대에 바이올린을 사현금으로 지칭한 것을 보면 번역자들이 바이올린의 우리식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활을 쓰지 않는 발현(탄현)악기들만 나열되어 있어 활을 쓰는 바이올린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동아시아 전통악기 비파는 4줄(향비파는 5줄)의 악기이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비파가 다니엘서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라틴어 성경에서 sambuchae나 chitarae가 하프, 비파계열로 해석되며 중국어 성경 및 카톨릭성경에서 비파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4현금은 비파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2) 일본어

新共同譯

角笛, 横笛, 六絃琴, 豎琴, 十三絃琴<sup>21)</sup>, 風琴

新改譯

角笛, 二管の笛, 立琴, 三角琴, ハーブ, 風笛

口語譯: 공동번역

角笛, 横笛, 琴, 三角琴, 立琴, 風笛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세로로 부르는 뿔피리를 각적(角笛)으로, 옆으로 부르는 피리를 한자로 횡적(横笛)으로 표기하고 있어 악기구조를 이해하기 편하다. 특히 생황과 유사한 악기로 風琴, 風笛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풍금은 생황 혹은 백파이프 계열의 악기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던 풍금(오르간)과 모양은 다르나 구조적으로 바람을

---

All the Levites who were musicians-Asaph, Heman, Jeduthun and their sons and relatives-stood on the east side of the altar, dressed in fine linen and playing cymbals, harps and lyres. They were accompanied by 120 priests sounding trumpets.

21) 13현금 明나라 2대 황제(재위, 1403-1424)였던 成祖가 편집한 『永樂琴書集成』에 소개된 악기이다. 이 악기는 한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악기이다. 풍금은 생황과 비슷한 구조이다.



불어넣어 떨림판을 울리는 악기로 그 구조는 동일하다.

하프를 나타내는 수금과 비슷한 표현으로 立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新改譯에서는 二管の 笛(쌍피리) 외에도 ハ - プ(파이프) 등 4종의 관악기가 나온다. 파이프는 영어 pipe를 음사한 것으로 風笛과 같은 악기로 보아야 하므로 현악기 하나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三角琴은 한글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악기이다. 삼각형 모양의 러시아의 전통악기 발랄라이카라는 악기가 있는데, 일본에는 이러한 모양의 악기가 없다. 삼각금을 하프로 볼 경우 일본 성경에는 샤미센, 비파류의 악기는 나오지 않고 수직형과 수평형의 악기로만 구분된다.

한편 한국 카톨릭 성경에는 이들 악기들이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으로 나온다.<sup>22)</sup> 개신교 한글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비파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신교 한글본에는 나오지 않는 삼각금과 풍적, 각적(뿔피리)이 나오는데 이들은 일본어 성경 口語譯:공동번역의 角笛, 横笛, 三角琴, 風笛 4가지 악기와, 新共同譯의 豎琴과 일치한다. 한편 중국어 성경에서는 角, 笛, 琵琶, 琴, 瑟, 笙로 제시되고 있는데, 카톨릭 성경의 뿔나팔, 피리 비파는 중국어 성경의 角, 笛, 琵琶 3가지 악기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한국 천주교 성경이 일본과 중국어 성경을 참조한 것으로 짐작된다.

### 3) 영어

#### NIV

the horn, flute, zither, lyre, harp, pipes

#### KJV

cornet, flute, harp, sackbut, psaltery, dulcimer

#### NASB

horn, flute, lyre, trigon, psaltery, bagpipe

NIV 번역에서는 관악기를 종적인 horn, 횡적인 flute, 생황계열인 pipes로 분류되고 관악기는 수직형인 하프, 수평형인 zither, 사선형인 비파, lyre로 구분하고 있어 악기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악기의 전반적 모양을 다루고 있다.

22) 굿뉴스 참조. <http://www.catholic.or.kr>

KJV에서 관악기는 생황계열의 pipe가 생략되고 종적인 cornet, sackbut과 횡적인 flute로 구분되고, 현악기는 수직형의 harp와 수평형의 psaltery와 dulcimer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psaltery와 dulcimer는 바닥에 놓여서 연주하는 악기로 두 악기 모두 전통악기 양금처럼 채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일본어 성경 新改譯판에서 같은 악기인 파이프(ハ - プ)와 風笛을 나열한 것처럼 동일악기의 반복은 아닌지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NASB 번역에서는 pipe를 bagpipe로 수직형 악기로 trigon(삼각금), 수평형으로는 psaltery로 제시하여 NIV 번역본보다 구조 및 모양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4) 기타 언어<sup>23)</sup>

원어 아래 악기명을 병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스페인어

cuerno	flauta	lira	arpa	salterio	gaita
뿔피리	플루트	리라	하프	덜시머	백파이프

##### 독일어 Hoffnung für Alle (HOF)

Hörner	Flöten	Zithern	Harfen	Lauten	Pfeifen
호른	플루트	지터	하프	류터	파이프

##### 프랑스어 La Bible du Semeur (BDS)

cor	fifre	cithare	lyre	harpe	double flûte
뿔피리	피리	치타르	리라	하프	쌍피리

##### 프랑스어 Louis Segond (LSG)

trompette	chalumeau	guitare	sambuque	psaltérion	cornemuse
트럼펫	갈대피리	기타	하프	프살테리움	백파이프

##### 러시아어 New Russian Translation (NRT)

рога	флейты	цитры	лиры	арфы	свирели
뿔피리	플루트	치타르	리라	하프	스비렐(통소, 피리)

##### 아제르바이젠어

şeypur	zurna <sup>24)</sup>	lira	arfa	səntur	tuluq zurnas
나팔	주르나	리라	하프	비파	생황

23) <https://www.biblegateway.com> 을 참조.

24) 한국의 태평소와 유사한 악기이다.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악기들의 구조적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어, 아제르바이젠어 번역본에서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악기(종적, 횡적, 파이프형), 현악기(수직, 수평, 사선형)로 구분된다. 러시아어에서는 파이프 혹은 생황 대신 피리 혹은 통소로 번역되는 슐비렐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공동번역에서만 생황 혹은 풍적 대신 통소로 번역된 것과 유사하다. 6개의 악기들을 순서대로 번역할 경우 수직형과 수평형의 악기가 뒤섞여 유사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2.2 그림으로 정리한 6가지 악기구조

영어번역에서는 현악기는 모두 활을 사용하지 않는 발현(탄현)악기로 Horizontal형(Zither), Vertical형(하프), 사선형(비파, lyre) 3가지로, 관악기는 종적(horn), 횡적(플루트), 파이프형(백파이프, 생황)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개역개정 4판과 비교하면 종적은 나팔, 횡적은 피리, 파이프형은 생황이며 현악기에서 삼현금은 Lyre, Harp는 수금(豎琴), Zither는 양금(洋琴)으로 대비시킬 수 있다. 이들 악기들 사진을 구조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파이프형

파이프형의 대표적 악기인 생황은 한국전통악기로 8세기에 주도된 상원사 동종에 새겨진 주악상으로 유명한 악기이다. 한국전통악기 중 유일하게 동시에 화음을 연주하는 악기로 일본어 번역본에는 ‘바람을 불어넣는 피리’라는 의미로 풍적(風笛)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 악기는 영국의 백파이프와 유사하며 기계적 장치로 확장되어 파이프오르간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 구조는 손풍금으로 불리는 어코디언, 바얀, 반도네온 등의 원리와도 유사하여 음색도 비슷하다.

<그림.1> 상원사동종 부조	<그림.2> 생황연주모습
	

< 그림 3> 중국 사천성 귀주 지역 - 생항 계열의 악기 연주<sup>25)</sup>



## 2) 세로형-종적

보통 나팔로 통칭되는 악기들로 세로로 부는 악기들을 통칭한다. 빨나팔, 단소, 통소, 클라리넷, 오보에, 한국피리, 리코더, 일본의 샤쿠하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4> 한국전통악기- 피리



<그림.5> 피리연주모습



25) EBS 여행프로그램 <세계테마기행>에서 캡처.

<p>&lt;그림.6&gt; 한국전통악기-태평소</p>	<p>&lt;그림.7&gt; 호주원주민악기-디제리두</p>
	

### 3) 가로형- 횡적

플루트로 대표되는 횡적은 한국전통악기에서는 대금, 소금 등이 있다. 이 악기들은 관을 입에 물고 부는 것과 달리 입술을 바람구멍에 살짝 대고 부는 방식이어서 종적과는 매우 다른 구조의 악기이다.

<p>&lt;그림.8&gt; 한국전통악기-소금</p>	<p>&lt;그림.9&gt; 한국전통악기-대금</p>
	

<그림.10> 인도악기- Bansuri	<그림.11> 플루트
	

#### 4) 수직구조(Vertical) - 하프


하프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악기이지만 번역과정에서는 거문고, 칠현금, 수금, 입금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에서는 공후(箜篌)라는 악기가 유사하다고 전언한 바 있다. 공후는 고전시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노래로 불렀던 공후인(箜篌引)에 나오는 악기이다. 완전히 수직으로 된 것과, 줄이 사선으로 된 것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상원사 동종 주악상에 생황과 함께 도상자료로 남아있다.

<그림.12> 공후 -상원사동종 부조 일부	<그림.13> 하프
	

### 5) 수평구조(Horizontal) - Zither

하프가 수직으로 세워 연주하는 악기라면 가야금, 거문고 등은 수평으로 놓고 연주한다. 한국 전통악기 중 아쟁도 가야금과 유사하지만 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중국에는 금(琴), 일본에는 고토가 있으며 악기 특성상 줄을 위에서 눌러서 소리를 내는 구조이다. 러시아의 구슬리가 하프를 눕혀놓고 연주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양금, 프살트리움은 이란의 dulcimer와 유사한 악기로 줄을 손으로 뜯는 것이 아니라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악기는 이후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에 영향을 주었다.

<p>&lt;그림.14&gt; 가야금 연주</p>	<p>&lt;그림.15&gt; 거문고 연주</p>
	

<p>&lt;그림.16&gt; 러시아 구슬리</p>	<p>&lt;그림.17&gt; dulcimer</p>
	

6) 사선형(Diagonal) - 비파, lute

비파는 동양을, 류트는 서양을 대표하는 사선형 악기이다. 연주자에 따라 완벽한 사선형이 안될 수도 있지만 하프처럼 직각으로 세운 악기와 가야금처럼 완전히 높은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동이 쉬운 이들 악기는 서양에서는 기타로 발전되어 보급되었다. 한중일 삼국에 전래된 비파는 중국형, 한국, 일본 음악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과 연주방식도 다르게 변형되었다. 인도의 sitar, 중동의 라바프 등이 유사한 형태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줄수를 가진 악기들이 존재한다.

<p>&lt;그림.18&gt; 류트</p>	<p>&lt;그림.19&gt; 월금과 비파</p>
	

<p>&lt;그림.20&gt; 러시아 발랄라이카</p>	<p>&lt;그림.21&gt; 일본 샤미센(三味線)</p>
	



### 3. 맺음말

다니엘이 살던 시기의 악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고 번역되면서 그 나라의 전통악기들로 변형된 것만은 사실이다. 각 시대와 지역의 현장에 맞추어서 번역하다 보니 엉뚱한 악기로 바뀐 경우도 있고 원문과 비교했을 때 악기 배치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탄현악기 3종, 관악기 3종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번역가들의 일부 오류도 있겠지만 최대한 원문에 나타난 악기의 구조를 고려하여 번역하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다니엘서에는 3장 이외에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 몇 개의 악기가 있다. 이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용어를 일본과 중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차용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전에도 찾을 수 없는 악기도 발견하였고 그 연원을 추측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견이 가능했던 것은 악기의 구조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여러 성경들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왕이 만든 우상앞에서 절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중심이어서 개별악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반신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에게 실제와 다른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최초의 악기에 대한 형태보다는 악기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여러 민족의 언어로 성경번역이 이루어질 때 현지의 악기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악기구성의 기초를 바탕으로 유사한 악기들을 대비시킨다면 원본 내용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리라 혹은 치타르를 동양의 비파로 변환한 것과 같이 과거에는 외래 악기를 현지의 악기로 자연스럽게 대체하였다. 현재는 각국의 선교사들이 파견된 지역에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성경 속 악기를 현지의 적절한 악기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사진과 동영상 검색이 자유로우므로 원문에 기록된 악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경에 QR코드를 입력하여 스마트폰이 이를 인식하여 사진과 연주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경 번역과 성경읽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경속에 나오는 다른 악기들을 접할 때 본 연구에서 밝힌 악기의 구조방식에 따른 분류가 번역과정과 성경읽기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논문

- 고형주, 「구약성경의 악기연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김해송, 「성경의 악기에 관한 연구」, 『教授論叢』, 한세대학교, 1994, 361-378쪽.  
박성은, 「성경에 나타난 악기 역할에 비취 본 현대 교회음악이 악기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단행본

- 김두완, 『교회음악과 악기』, 서울:아가페음악선교원출판부, 2000.  
김명환, 『찬양의 성전』, 새찬양위원회, 1999.  
김문자 외,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고려서적, 1998.  
박용민 역, Andrew Wilson-Dickson, 『교회음악사 핸드북』, 생명의 말씀사, 1996.  
서운석.문호근 역, Grout. Donald J, 『서양음악사』, 수문당, 1997.  
성철훈 역, John Stainer, 『성경음악』, 호산나음악사, 1994.  
이귀자 역, Russel. N. Squire, 『교회음악사』, 메시아, 1984.  
이춘산, 『교회와 악기』, 아가페음악선교원출판부, 2000.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사전

- 성서백과대사전편찬위원회, 『성서대백과사전』제7권, 성서교재간행사, 1981.  
세광출판사사전편찬위원회, 『음악대사전』, 세광출판사, 1982.  
악기사전편찬위원회, 『세계악기사전』, 성광문화사, 1996.  
『한겨레음악대사전』 인터넷판.

### 성경번역 참조사이트

- <https://www.biblegateway.com>  
<http://bible.godpia.com>  
<http://vulsearch.sourceforge.net>